

전치사 *de*를 동반하는 스페인어 소비동사의 상적 특성

곽재용
한국외국어대학교

곽재용(2015), 전치사 *de*를 동반하는 스페인어 소비동사의 상적 특성.

초 록 Zato(2014)는 스페인어의 소비동사(consumption verbs)인 *comer*, *beber*, *fumar* 등은 주어가 소비하고자 하는 대상을 취하고자하는 근원을 표현하기 위해 전치사 *de*를 사용하고 그 근원은 소비대상 그 자체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부분적 해석(partitive reading)을 가짐에 따라 내재논항은 부분적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Zato는 전치사 *de*가 나타나는 구조를 소위 시도구조교호(conative alternation)의 일환으로 보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상적 전환(aspectual changes)을 유발한다고 언급하지만 Vázquez et al.(2000)은 스페인어에서는 이러한 시도구조교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소비동사가 전치사 *de*를 동반하는 경우 시도구조교호가 아님을 증명하고 소비동사의 상적 해석은 동사의 보어위치에 생성되는 $P_{[\pm \text{SOURCE}]}$ 의 문자화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분산형태론(Distributed Morphology: Halle & Marantz(1993))적 접근을 통해 그 도출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핵심어 소비동사, 전치사구 동반동사, 시도구조교호, 상적 해석

I. 들어가는 말

Almagro(1993)에 따르면 스페인어 문장 ‘*Juan se bebe el vino.*’와 ‘*Juan bebe el vino.*’와 같은 두 문장은 기본적인 정보는 본질적으로 같지만 접어대명사(clitic) *se*가 사용된 전자의 경우는 사건을 한정하고 나아가 소비동사(consumption verbs) *beber*의 내재논항(internal argument)인 *el vino*가 소비된 총량(totality)을 표현한다고 한다. Nishida(1994, 442)는 이러한 경우에 출현하는 접어대명사 *se*는 내재논항의 양화성을 한정하는 표지자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se*의 출현은 스페인어에서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양화성을 갖는 내재논항이 대격(accusative Case)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분적 피영향성(partial affectedness)을 갖는 문장에서는 출현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타동사 구조에서 정관사나 기수성(cardinality)을 갖는 양화사가 소비동사의 보어와 함께 DP로 나타나는 경우 이 DP는 피영향성과 한정적 양화성을 동시에 갖지만, 전치사 *de*를 수의적으로 동반하는 소비동사의 보어는 구체적인 양화성을 가지는 DP로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 피영향성의 해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산형태론(Distributed Morphology: Halle & Marantz(1993))의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전치사 *de*를 수의적으로 동반하는 스페인어 소비동사의 특성

1. 전치사가 출현하는 스페인어 소비동사는 시도구조교호인가?

Zato(2014, 67)는 스페인어의 소비동사인 *comer*, *beber*, *fumar* 등은 주어, 즉 소비의 주체가 소비하고자 하는 대상의 근원을 표현하기 위해(in order to express the place from which the subject takes the substance to consume) 전치사 *de*를 사용한다고 언급한다. Zato는 이렇게 전치사 *de*의 보어가 소비의 근원이며 소비대상 그 자체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부분적 해석(partitive reading)을 가짐에 따라 내재논항의 부분적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Zato는 전치사 *de*가 나타나는 구조를 소위 시도구조교호(conative alternation)의 일환으로 보

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상적 전환(aspectual changes)을 유발한다고 언급한다. 가령 타동사구조는 변화(transition)를 나타내므로 직접목적어(direct object)는 점진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지만 사격논항은 과정(process)을 나타내므로 부분적 소비, 즉 부분적 피영향성(partial affectedness)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 (1) a. (Se) comió la tarta {**durante/en*} cinco minutos.
ate the cake for in five minutes
'S/he ate the cake {for/in} five minutes'
a'. Comió de la tarta {*durante/*en*} cinco minutos.
ate from the cake for in five minutes
'S/he ate at the cake {for/in} minutes'
b. (Se) bebió la cerveza {**durante/en*} cinco minutos.
drank the beer for in five minutes
'S/he drank the beer {for/in} five minutes'
b'. Bebió de la cerveza {*durante/*en*} cinco minutos.
drank from the beer for in five minutes
'S/he drank from the beer {for/in} five minutes'

(Zato 2014, 67-68)

위 (1)의 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페인어의 소비동사는 DP가 기수사(cardinal number)등을 통해 구체적인 양(specific quantity)을 표시하거나 총량을 언급하는 정관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종결의 해석(telic interpretation)을 가지며 그러한 경우 상적 표시자(aspectual marker)(cf. Sanz(2000))인 접어대명사 *se*의 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DP가 구체적인 양화성을 갖는 요소로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de*에 후행하여 사격(oblique Case)로 실현되는 경우는, Zato(2014)의 언급처럼, 종결의 해석을 갖지 못하고 비종결의 해석(non-telic or atelic interpretation)을 갖게 된다. 부분의 해석을 갖는 '*un pedazo/trozo de*', '*una porción de*', '*un poco de*' 등이 외현적으로 출현하지 않고도 전치사 *de*만이 출현하는 경우 위의 소비동사들은 모두 자신에 후행하는 소비대상물의 일부분만을 소비하는 해석적 특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전치사 *de*를 동반하는 예문들은 Zato의 주장과는 달리 시도구조 교호로 보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내재한다. 먼저 시도구조라는 용어에서 사용되는 단어 ‘Conative’는 어원적으로 라틴어 ‘conari(to try)’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타동사가 전치사 *at*을 동반하여 자동사처럼 기능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영어는 소비동사를 포함하여 이동 및 접촉과 관련된 동사 (verbs of motion and contact)등이 이러한 시도구조 교호를 갖는다.

- (2) a. Caesar drank a glass of beer in/? for five minutes.
 b. Caesar drank at a glass of beer (slowly) for/?? in an hour.
 (Beavers 2008a, 104)
- (3) a. John hit his brother.
 a'. John pegó a su hermano.
 b. John hit at his brother.
 b'. ?John intentó pegar a su hermano.
 (Vázquez et al. 2000, 312)

Levin(1993, 6)에 따르면 (2b)와 같은 시도구조에서는 동사가 의미하는 행위가 종결되었다는 함의가 없이 시도된 행위(attempted action)라고 기술하며 Goldberg(1995)의 경우는 (3)의 예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의도된 결과(intended result)를 표현하는 것으로 기술한다. 즉 Vázquez et al.(2000, 311-312)은 (3)에서 보듯이 스페인어에서는 타동사가 전치사를 동반하여 시도구조 교호가 유발되는 경우는 없다고 언급한다. 영어는 (2a,b)에서 보듯이 시도구조의 교호가 가능하지만 스페인어에서는 (1)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전치사를 동반하는 경우 시도구조 교호와 관련된 해석(cf.(3))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소비동사가 전치사 *de*를 동반하는 경우 시도구조로 판단하기에 큰 설득력이 없으므로 스페인어의 소비동사와 함께 수의적으로 등장하는 전치사를 시도구조의 요소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영어의 시도구조 교호와 공유하는 특성 중 하나는 스페인어의 소비동사가 수의적으로 전치사를 허용하는 경우 비종결의 상적 해석을 갖게 되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소비동사가 수

의적으로 전치사를 동반하는 경우 비종결의 해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DP가 구체적인 양화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de*에 후행하는 경우 왜 DP논항이 부분적 피영향성을 갖게 되는지를 통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스페인어 소비동사의 일반적 특성

Levin(1993, 213)은 소위 소비동사는 음식이나 음료의 섭취과정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정의하는데 Van Valin & LaPolla(1997)는 이러한 소비동사의 논리구조¹⁾를 Role & Reference Grammar(앞으로 RRG로 표기)의 견지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4) $do'(x, [pred'(x, y)]) \& BECOME\ consumed'(y)$

RRG의 접근에 따르면 소비동사는 행위(activity)와 완성(accomplishment)의 해석을 아우르는 행위적 완성(active accomplishment)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arial-Usón & Ruiz de Mendoza(2008, 144)는 (4)의 분석으로는 보다 다양한 소비동사의 의미적 특성을 밝히기 어렵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보다 세부화된 구조를 제시한다.

(5) $do'(x, [CAUSE.BECOME.be-in'([have.as.part'(x, mouth)], \alpha).in. (\beta).manner'])$

1) RRG는 동사의 상적 특성과 관련된 논리구조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있다.

Verb Class	Logical Structure
State (상태)	predicate' (x) or (x,y)
Activity (행위)	do' (x, [predicate' (x) or (x,y)])
Achievement (성취)	INGR predicate' (x) or (x,y) or INGR do' (x, [predicate' (x) or (x,y)])
Accomplishment (완성)	BECOME predicate' (x) or (x,y) or BECOME do' (x, [predicate' (x) or (x,y)])
Active accomplishment (행위적 완성)	do' (x, [predicate1' (x,y)]) & BECOME predicate2' (z,x) or (y)
Causative (사역)	α CAUSES β where α, β are LS of any type.

(x, y)) & BECOME consumed' (y) $\alpha = y$
 (Marial-Usón & Ruiz de Mendoza 2008, 144)

(6) EVENTSTR: [do' (x, e1)]E1 and [INGR NOT exist' (y)]E2' E1 < E2
 QUALIASTR: {QF: MANNER E1
 QA: e1: do' (x, [CAUSE.BECOME. LOCin'.(part_of x, y)])
 QT: E2}
 (Marial-Usón & Ruiz de Mendoza 2008, 151)

(5)는 효과유발자(effector)인 x가 행위를 수행하여 피영향성²⁾을 갖는 y가 x의 입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구조를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소비동사가 불가산 명사(mass noun)를 관사 없이 논항으로 취하는 'Juan bebió cerveza.'의 경우는 비종결 행위의 의미를 가지지만 'Juan bebió la cerveza.'는 논항의 양화 한정성으로 인해 종결의 해석을 가질 수 있다. Pustejovsky (1995, 73-74)의 모델에 의거하여 Marial-Usón & Ruiz de Mendoza(2008)가 사건핵 E1<E2와의 관계를 (6)처럼 미명세하여 설정한 이유는 사건핵이 행위자의 특질(Agent Quale)로 표시되는 *E1<E2의 경우에는 행위의 사건이므로 통사구조에서 비종결의 해석(non-telic interpretation)이 선택되지만 두 번째의 하위사건(second subevent)이 핵으로 표시되는 E1<*E2의 경우는 종결의 특질(Telic Quale)로 판단하고 동사는 행위적 완성(active accomplishment)로 해석이 된다는 점을 기술하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5)와 (6)을 통해서도 논항의 의미적 자질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설명력을 갖기는 어렵다.

Beavers(2010)는 앞의 (5)-(6)의 분석과는 사뭇 다르게 논항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Beavers는 소비동사의 경우 논항이 관사 혹은 관사 상당 어구인 소유형용사가 나타나는 한정적 성격의 DP라 할지라도 전치사에 후행하는 경우 모두 양화성이 명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동사의 내재논항이 대격의 DP로 나타나는지 또는 PP 즉 사격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양화성이 구분

2) Tenny(1987)와 Dowty(1991)는 소비동사는 전형적으로 이런 종류의 피영향성을 갖는 증분대상역(incremental Themes)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된다고 주장한다.

- (7) a. Marie ate her cake/drank her wine. (all of cake/wine consumed)
 b. Marie ate at her cake/drank at her wine. (at least some cake/wine consumed)

- (8) eat conative: a. < DP, DP >
 PROTO-AGENT QUANTIZED
 b. < DP, PP >
 PROTO-AGENT NONQUANTIZED

- (9) MORPHOSYNTACTIC ALIGNMENT PRINCIPLE (MAP)
 : When participant x may be realized as either a direct or oblique argument of verb V, it bears L-thematic role R as a direct argument and L-thematic role $Q \subseteq MR$ as an oblique.

(Beavers 2010, 830-848)

Beavers(2010, 848)는 (9)에 의거하여 소비동사는 (8)처럼 두 개의 다른 논항 구조를 가진다고 제안한다. 즉, (7a)와 같은 문장은 (8a)의 논항 구조에 의거하여 논항 DP의 완전한 소비를 의미하고 (7b)는 (8b)의 구조에 의거하여 완전한 소비에 대한 해석이 명세화되지 않아서(cf. Beavers 2008b, 104) DP의 부분적 소비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Beavers(2010)는 시도구조교호(cf. Guerssel et al. 1985; Levin 1993; van der Leek 1996; broccias 2003; Beavers 2006 etc.)는 피영향성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도구조교호는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논항구조를 가지면서 전치사를 통해 가변적 해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를 동반하는 구조와 전치사를 동반하지 않는 구조를 별도의 논항구조로 가정하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 a. Caesar drank a glass of beer in/?for five minutes.
 b. Caesar drank at a glass of beer (slowly) for/?in an hour.

(Beavers 2008a, 104)

에 대해 통사적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는 점은 Beavers(2008a)의 연구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한편, *np*을 사용하여 완전소비의 의미를 갖는 영어구문 (10a)에 해당하는 스페인어의 구문은 접어대명사 *se*가 사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스페인어에서는 접어대명사 *se*가 (10a)의 *np*처럼 P의 핵에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 3장에서 본 연구는 영어의 *np*과 *at*이 P의 핵에 생성되는 것과 달리 스페인어에서는 *se*와 *de*가 P에 출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 두 요소는 소비동사의 상적 해석과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접어 *se*는 종결의 해석을 갖는 한정적 양화성을 갖는 대격 보어가 출현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요소이므로 일종의 종결의 상적 해석과 관련된 접어의 중복구조(Clitic Doubling Construction)로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치사 *de*는 본유적으로 [\pm SOURCE]자질을 가지며 외현적으로 음성실현의 여부의 차이에 따라 상적 차이를 갖는 전치사 동반 동사에 나타나는 전치사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III. 스페인어 소비동사의 도출구조에 대한 제안

1. 전치사구 동반 동사로서 기능하는 스페인어 소비동사 구조

스페인어의 소비동사 *beber*가 전치사 *de*를 동반하는 다음의 예문들은 영어의 시도구조처럼 시도의 의미는 없지만 상적 해석에서는 동일한 비종결의 해석을 갖는다.

- (11) a. César bebió una botella de cerveza en/?durante cinco minutos.
 b. César bebió de una botella de cerveza (lentamente) durante/??en una hora.
 c. *César bebió de cerveza en/durante cinco minutos.
 d. César bebió cerveza *en/durante cinco minutos.

(11a)는 맥주 한 병(*una botella de cerveza*)이 구체적으로 척도(*measure*)의 의미를 가지므로 만약 완전히 맥주 한 병을 다 마셨다면 종결의 해석을 가지며 소비동사의 행위적 완성이라는 상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종결의 해석

이 어색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1b)는 구체적으로 ‘맥주 한 병’이라는 양화성을 가지더라도 전치사 *de*의 출현으로 인해 ‘맥주 한 병의 일부량’을 마신 것으로 해석되므로 ‘맥주 한 병을 다 마시는 행위’의 종결의 해석은 매우 어색한 결과를 낳는다. (11c)는 ‘*beber de*’ 구조가 불가산 명사를 보어로 취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며 (11d)는 논항이 불가산 명사이지만 대격으로 나타나면 맥주를 마시는 행위를 나타내므로 Marial-Usón & Ruiz de Mendoza(2008)의 언급처럼 행위자적 특질과 관련된 비종결의 해석을 갖게 된다. Beavers(2008a; 2008b)나 Marial-Usón & Ruiz de Mendoza(2008)의 접근은 일견 소비동사가 전치사의 동반 여부에 따라 의미적 차이가 존재함을 언급하지만 전치사의 출현구조와 그렇지 않은 구조가 (11c)와 (11d)와 같이 전치사를 동반하는 동사구가 불가산 명사를 보어로 취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아울러 Beavers(2008a; 2008b)나 Marial-Usón & Ruiz de Mendoza(2008)는 스페인어의 소비동사는 전치사를 동반하지 않는 타동사의 경우 자신의 보어가 무관사의 불가산 명사이면 비종결 해석을 갖고 관사를 동반하는 경우 종결의 해석을 갖지만, 전치사를 동반하는 경우 왜 자신의 보어가 불가산 명사 뿐만 아니라 가산명사(count noun)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관사를 동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동사의 본유적 상적 특성과 함께 전치사가 출현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상적 특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안적 설명 모델을 통사적 특성에 입각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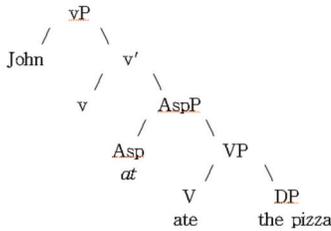
Verkuyl(1972; 1995), Dowty(1979), Tenny(1987), Jackendoff(1996)등을 비롯한 많은 연구들은 소비동사의 직접목적어인 DP는 소위 증분대상역(incremental theme)이며 동사의 상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가령 영어의 동사 *eat*는 단독으로는 비종결의 상이지만 직접목적어가 가산명사인 경우 종결(telic)의 해석을 갖고 직접목적어가 불가산명사인 경우 비종결의 해석을 유지한다. 이러한 특성은 스페인어의 경우에서도 상적 표시자(aspectual marker)인 접어대명사 *se*의 출현을 통해서도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12) a. César se bebió una botella de cerveza en/*durante cinco minutos.
 b. *César se bebió de una botella de cerveza (lentamente) durante/en una hora.
 c. *César se bebió de cerveza en/durante cinco minutos.
 d. *César se bebió cerveza en/durante cinco minutos.

위 (12)의 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페인어의 상적 표시자 *se*는 소비동사의 논항이 구체적인 양을 나타내는 [+SQA](specific quantity)의 자질을 갖는 대격의 DP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격의 논항과는 결코 공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적 표시자 *se* 뿐만 아니라 전치사 *de* 역시 문장의 상적 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는 점에 의거하여 볼 때 동일한 위치에 생성되는 요소가 아닌지에 대해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MacDonald(2006, 130)는 영어의 ‘John ate at the pizza.’와 같은 시도구조는 (13)과 같이 전치사 *at*이 Asp의 핵에 출현한다고 보았다. 이는 Beavers(2008a)가 제안하는 (10a)와 (10b)의 구조와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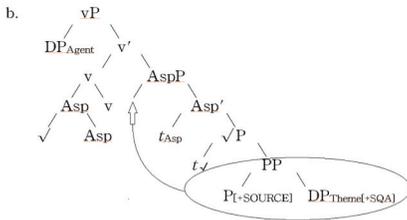
MacDonald(2006)는 Asp를 [-q]로 가정하기 때문에 (13)에서 보듯이 소비동사의 보어 위치에 나타나는 DP논항은 정관사를 동반하여도 문장이 구체적 인 양화성과는 무관하게 비종결의 해석을 갖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스페인어의 전치사 *de*는 MacDonald가 가정하는 Asp의 핵에 출현하여 (13)과 같은 도출적 형상 구조를 갖는 것일까?

잠시 전치사의 도출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에 앞서 부분격 구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자. Rutkowski(2007, 338)는 영어나 로망스어의 부분격(partitive

가산 명사가 가지는 본유적인 [-SQA]의 특성에 따라 부분적 피영향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16d)가 불가능한 이유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의 부분적 피영향성의 해석은 불가능하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분적 피영향성을 드러내는 ‘*beber de*’에 나타나는 전치사 *de*는 부분적 전치사이며 ‘*un trago de cerveza*’에 나타나는 전치사 *de*는 준부분적 전치사(cf. Stickney(2004))이므로 (16d)는 이중 부분적 구조로 인해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판단된다고 본다. (16a,b,c)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정관사의 출현은 [+SQA]의 자질을 나타내며 (16c)의 ‘*beber de*’에 나타나는 전치사 *de*는 준부분적 전치사가 아니라 부분적 전치사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동사가 논항의 양화적 성격에 따라 상적 해석이 달라지는 점은 기본적으로 소비대상인 보어의 양화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즉, (15c)와 같은 문장에서 DP_{Theme}인 ‘*la cerveza*’의 각 구체적인 하위부분/양은 동사 *beber*의 소비라는 사건의 구체적인 소비대상에 포함되므로 소비동사의 DP_{Theme}은 척도가능한 개별적 양의 총합으로 [+SQA]의 자질을 갖는 DP_{Theme}로 등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5a)의 경우는 [-SQA]인 DP_{Theme}의 특성으로 인해 완성의 의미를 갖는 개별사건의 해석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소비동사는 소비대상인 보어가 공급원(source) 그 자체이거나 그 일부인 경우를 표현하므로 소비대상이 소비공급원임을 나타내는 자질을 구현하기 위해 전치사를 본유적으로 동반하는 자동사로 규정하고 그 실현구조를 분산형태론(Distributed Morphology, cf. Halle & Marantz 1993)적 분석틀에 의거하여 다음 (17)과 같이 제안한다.

(17) a. Juan bebió de la cerveza. (= (16c))



이러한 (17b)와 같은 구조는 (17a)의 의미가 소비대상 공급원의 일부를 소비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PP_[+SOURCE]를 보어로 취하는 어휘근 $\sqrt{\text{ }}$ 는 복합핵 [$\sqrt{\text{ }} + \text{Asp}$]을 이루고 PP는 [Spec AspP]에서 지정어-핵 일치관계(Spec-head Agreement)로 비종결의 해석을 확인하고 DP_{Theme}이 부분적 피영향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5a), (15b), (15c)와 같은 문장들은 소비공급원 자체를 완전한 소비대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P_[+SOURCE]는 영문자화(Null Spell-out)가 이루어지게 되며 DP_{Theme}의 완전한 피영향성의 해석을 갖게 되며 종결의 해석과 비종결의 해석은 논항의 $[\pm \text{SQA}]$ 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이러한 영문자화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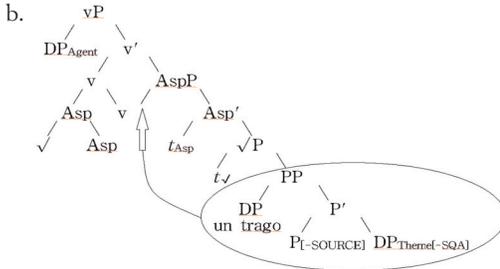
- (18) a. (17b)와 동일하게 PP는 [Spec AspP]로 이동한다. 이후 최종단계에서 P_[+SOURCE]가 영문자화된다.
 b. P_[+SOURCE]는 연속적 순환이동을 통하여 복합핵 [$\text{Asp} + \sqrt{\text{ }} + \text{P}_{[+SOURCE]}$]을 이루고 이 복합핵은 [Spec AspP]로 이동한 DP_{Theme}와 $[\pm \text{SQA}]$ 자질에 관하여 지정어-핵 일치를 이룬다. 복합핵 [$\text{Asp} + \sqrt{\text{ }} + \text{P}_{[+SOURCE]}$]는 상위의 기능범주 v로 이동하여 다시 복합핵 [$\text{v} + \text{Asp} + \sqrt{\text{ }} + \text{P}_{[+SOURCE]}$]을 이룬다.

(18a)는 소비동사의 보어인 PP는 P가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모두 상적 자질과 관련되어 [Spec AspP]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상적 해석을 확인하는 기제인 [Spec AsP]로 PP_[±SOURCE]가 동일하게 이동을 한다는 가정이라는 점에서 설명적 통일성을 갖는다. 즉, P가 소비동사의 어휘근과 함께 복합핵을 이루어 문자화에 참여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전제가 담겨있다. 그러나 만약 (18b)의 가정을 한다면 (15a)의 경우에는 $[\text{v} + \text{Asp} + \sqrt{\text{ }} + \text{P}_{[+SOURCE]}]$ 와 같은 복합핵을 형성한다고 가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P가 최종단계에서 동사의 문자화에 참여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가정이므로 (18a)의 가정과는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18b)로 가정하는 경우는 [Spec AspP]로 이동한 요소는 PP 전체가 아닌 $[-\text{SQA}]$ 의 자질을 갖는 DP_{Theme}만의 이동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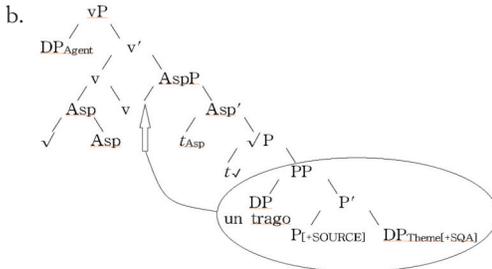
정한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 (18b)의 가정은, 그러나, P_[+SOURCE]가 영문자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외현적으로 구현되는 경우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다른 요소가 등장하는 ‘bebió un trago de la cerveza’와 같은 정확한 도출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cf. (20a,b)) 설득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8a)의 가정을 취하여 P가 영문자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외현적 음성실현이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 동사의 문자화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동사의 문자화는 [v+Asp+√]의 복합핵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다음 예문과 그 도출 구조를 보자.

(19) a. Juan bebió un trago de cerveza. (=15d)



(20) a. Juan bebió un trago de la cerveza.



(19b)와 (20b)는 모두 본 연구가 견지하는 (18a)의 문자화 조건을 따르는 도출적 환경이다. (19)와 (20)의 구조가 보여주는 차이점 중 하나는 전자의 경우 소비동사가 선택하는 PP의 핵은 P_[-SOURCE]이며 후자의 경우는 P_[+SOURCE]이다. 이는 (14)의 예시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16a)와 (19a)의 비교를 통해서 부분

격은 불가능하고 준부분격으로 가능한 불가산명사이므로 근원의 해석을 가질 수 없는 P의 실현이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다. 반면 (17b)에서 살펴본 PP의 [Spec AspP]로의 이동은 P_[+SOURCE]를 포함하는 이동이며 이러한 이동은 (20b)의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단 여기서 우리는 P_[+SOURCE]의 지정어에 최소 단위의 의미를 갖는 DP ‘*un trago*’를 포함하는 이동이라는 차이만이 존재하므로 이는 부분격 구조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준부분격으로 실현되는 (19a)는 DP_{Theme}이 [-SQA]임에도 불구하고 종결의 해석을 갖는데 그 이유는 [Spec PP]의 DP_[+SQA] ‘*un trago*’를 포함하는 PP인 ‘*un trago de cerveza*’가 [Spec AspP]에서 종결의 해석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20a)의 문장이 종결의 해석을 갖는 이유는 DP_{Theme}인 ‘*la cerveza*’가 [+SQA]자질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19a,b)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처럼, [Spec AspP]로 이동한 PP의 지정어 요소인 DP ‘*un trago*’가 종결의 해석과 관련되는 [+SQA]자질이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해 볼 때 전치사의 외현적 실현과 함께 준부분격과 부분격구조로 나타나는 (19b)와 (20b)는 그 상적 해석이 [Spec PP]에 위치한 DP의 양화성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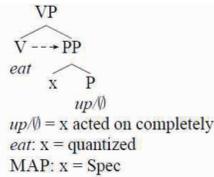
한편 (15c)와 같이 전치사 P_[+SOURCE]를 외현적으로 실현하지 않고 영문자화하는 경우는 완결의 해석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15c)의 기저구조는 (17b)와 동일하며 (18a)의 가정에 따라 소비동사의 보어인 PP는 [Spec AspP]로의 이동하므로 P가 영문자화됨으로 인해 DP_[+SQA]가 사격이 아닌 대격으로 실현되는 환경이므로 종결의 해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출적 구조는 (15a)와 (15b)의 DP_{Theme}이 (15c)와 동일하게 대격으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SQA]의 자질로 인해 비종결의 해석을 가지는 것 역시 예측할 수 있다.

2. 상적 표시자 *se*의 생성위치는 전치사구 동반 소비동사의 전치사의 생성 위치와 동일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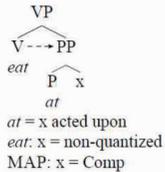
앞에서 제안한 전치사구 동반 동사로서의 특징을 갖는 소비동사는 전치사의 외현적 구현 여부 및 전치사구 내부에 출현하는 DP의 특성에 따라 상적 해

석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앞 2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소비동사는 본유적으로 행위적 완성의 해석을 가지므로 종결의 해석을 가질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특정한 맥락이 강제하는 경우 비종결의 해석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DP_{Theme}이 [+SQA]의 자질을 가질 경우, 영어에서는 *up*, 스페인어에서는 *se*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비종결적 해석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된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Beavers(2008a)의 주장처럼 완전한 소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영어의 *up*이 소비동사가 선택하는 PP의 핵에 나타난다면 스페인어의 *se*역시 이와 동일한 도출적 환경을 갖는지 대한 여부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10)을 다시 보자.

(10) a. John ate the pizza/drank the beer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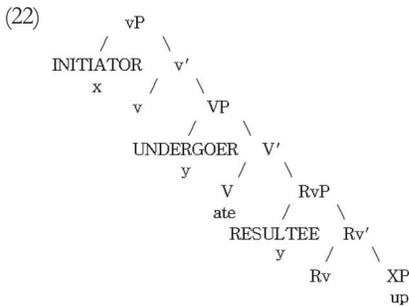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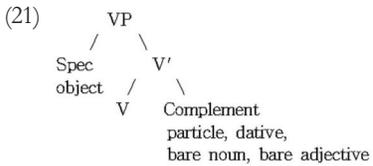
b. John ate at the pizza/drank at the beer.



영어 소비동사의 상적 해석과 관련된 *up*이나 *at*이 모두 동사가 선택하는 PP의 핵에 생성된다는 점은 일견 기술적 통일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가 3.1.에서 제시하는 구조의 PP의 핵에 접어대명사 *se*가 생성될 가능성은, 접어대명사의 범주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영어에서 *up*은, 방향성을 함의하는 전치사로의 기능도 물론 존재하지만, 완전 소비를 뜻하는 (10a)의 경우에서 *up*은 전치사로 규정되기 보다는 일종의 불변화사결합동

사(不变化詞結合動詞: particle verb)의 불변화사(particle)로 규정될 수 있다. 불변화사는 어휘부에서 생성된 복합어(c.f. Booij 1990; Johnson 1991; Neeleman 1994; Neeleman & Weerman 1993; Stiebles & Wunderlich 1994; Wiese 1996; Ackerman & Webelhuth 1998)로 보는 견해, 또는 외현적 혹은 내현적으로 동사로 포함(incorporation)되는 요소로 보는 견해(c.f. van Riemsdijk 1978; Baker 1988; Koopman 1995; Zeller 1998) 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스페인어의 경우는 Bobcock(1970), Schrotten(1972), Sanz(2000) 등이 접어대명사 se를 타동사 내재논항의 피영향성과 관련된 상적표시자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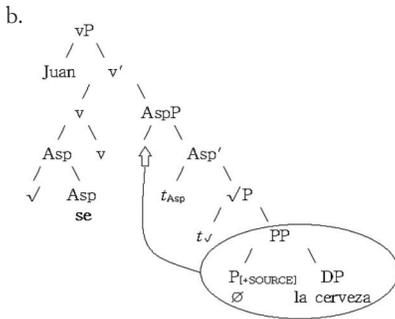
Van Hout & Roeper(1998)가 불변화사와 접어대명사의 생성위치를 (21)과 같이 제안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Ramchand(2002)는 (22)의 도출 구조에서 처럼 각 범주 v, VP, RvP(Result Phrase)의 병합과정에서 각 지정어의 위치에 EPP자질을 부여하여 소위 'l-syntax'상에서 각 논항의 해석을 예측할 수 있게 제안한다.



Van Hout & Roeper(1998)가 제안하는 (21)과 같은 구조와 Ramchand(2002)가 제안하는 (22)와 같은 구조는 본 연구가 주요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전치사

의 생성 위치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적어도 Beavers(2008a)는 소비동사가 선택하는 불변화사 *up*이나 전치사 *at*의 출현위치를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점에서 접어대명사 *se*의 위치로 과연 P가 적합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Ramchand의 (22)의 구조는 단일 논항이 구조 내부에 두 번 출현한다는 점에서 의미역 기준(Theta-criterion)을 충족하지는 않는다. Ramchand는 동사의 내재논항은 논항연쇄를 통해 의미적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22)의 구조를 주장하므로, 일단 의미역 기준에 대한 내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21)의 Van Hout & Roeper(1998)가정을 고려해 볼 때, 접어대명사 *se*의 출현위치를 불변화사의 위치로 가정한다는 것은 일견 통사적 호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영어의 불변화사 구조가 (21) 혹은 (22)의 구조를 가질 수 있을 지라도 소비동사의 부분적 피영향성을 유발하는 구조는, 앞에서 본 연구가 가정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17b)와 같으며 접어대명사의 실현은 일종의 한정적 양화성 자질을 갖는 DP의 출현환경에서 실현가능한 일종의 완결의 상적 자질을 갖는 접어 *se*의 접어중복구조(Clitic Doubling Construction)라고 본다. 한정적 양화성을 나타내는 DP만으로도 문장 전체의 해석에서 종결의 해석을 유지하는데에 무리가 없으며 한정적 양화성을 갖는 DP의 출현만이 접어대명사 *se*가 상적 표시자로서 출현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접어대명사 *se*의 출현을 상적 표시자인 접어의 중복구조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23) a. Juan se bebió la cerveza.



(23b)는 P의 영문자화가 이루어지는 도출구조로 PP의 내부에서 P의 보충어의 위치에 나타나는 DP는 자격이 아닌 대격으로 실현되며 [+SQA]자질을 가지고 [Spec AspP]로 이동한다. 이러한 경우 [Spec AspP]의 지정어의 위치로 이동한 PP는 [+SQA]자질을 갖는 대격의 DP로 기능하므로 이러한 도출환경에서 종결의 상적 자질을 확인(identification)할 수 있는 요소는 스페인어의 경우 접어대명사 *se*이며 이러한 상적 자질을 확인하는 접어대명사 *se*는 상위의 동사자질과 관련된 자신의 형태-통사적 특성으로 인해 동사의 어휘근과 함께 상위의 μ 로 이동하여 복합핵을 이루어 문자화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영어와 달리 스페인어는 형태-통사적 요소인 접어로 종결의 상을 확인하며 불변화사의 투사위치에 생성될 수 없고 전치사구 동반동사의 전치사가 생성되는 위치와는 다른 위치에서 생성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소비동사는 본유적으로 P_[±SOURCE]를 동반하는 전치사구 동반동사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페인어 소비동사가 내재논항으로 취하는 요소의 한정성과 관련한 현상 및 부분격과 준부분격 구조를 갖는 다양한 제 현상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스페인어 소비동사는 본유적으로 전치사구 동반동사이지만 상적 의미의 차이를 유발하는 환경이 DP_{Theme}의 [±SQA]의 자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의 외현적 실현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소비동사가 선택하는 전치사의 [±SOURCE]자질의 여부에 따라 부분격과 준부분격의 해석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분산형태론적 접근을 통해 도출적 형상구조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하여 상적 해석과 관련된 통사적 운용으로 소비동사의 보어인 PP의 [Spec AspP]로의 이동을 제안하고 상적 표시자 *se*의 출현위치는 소비동사가 선택하는 PP의 핵인 P에서 생성되는 전치사의 위치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Ackerman, F. & G. Webelhuth(1998), *A Theory of Predicates*, Stanford: CSLI Publications.
- Almagro, A. M.(1993), "Semantic information in se-constructions in Spanish," *University of Trondheim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Grammar and the Lexicon*, 16, 136-154.
- Baker, M.(1988),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avers, J.(2006), "Argument/oblique alternations and the structure of lexical meaning,"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Linguistics, Stanford University at Stanford.
- _____(2008a), "The Structure of Lexical Meaning: Why Semantics Really Matters," draft March 5, 2008,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_____(2008b), "Multiple incremental themes and figure/path relations," *Proceedings of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SALT)*, 18, 90-107.
- _____(2010), "The structure of lexical meaning: why semantics really matters," *Language*, 86(4), 821-864.
- _____ & I. Francez(2011), "Several problems for predicate decompositions,"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32, to appear.
- Bobcock, S.(1970), *The Syntax of Spanish Reflexive Verb: The parameters of the middle voice*, La Haya: Mouton.
- Booij, G.(1990), "The Boundary between Morphology and Syntax: Separable Complex Verbs in Dutch," *Yearbook of Morphology*, 3, 45-63.
- Broccias, C.(2003), *The English change network: Focusing changes into schemas*, Berlin: Mouton de Gruyter.
- Dowty, D.(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Reidel.
- _____(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547-619.
- Guerssel, M., et al.(1985), "A cross-linguistic study of transitivity alternations," *Chicago Linguistic Society*, 21(2), 48-63.
- Goldberg, A.E.(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lle, M. & A. Marantz(1993), "Distributed Morphology and the pieces of inflection," K.Hale & J. Keyser(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Cambridge: MIT Press, 111-176.

- Jackendoff, R.(1996), "The proper treatment of measuring out, telicity, and perhaps even quantification in English,"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4, 305-354.
- Johnson, K.(1991), "Object Position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9, 577-636.
- Koopman, H.(1995), "On Verbs That Fail to Undergo V-Second," *Linguistic Inquiry*, 26, 139-163.
- Koptjevskaja-Tamm, M.(2001), "'A piece of the cake' and 'a cup of tea': partitive and pseudo-partitive nominal constructions in the Circum-Baltic languages," O. Dahl & M. Koptjevskaja-Tamm(eds.), *The Circum-Baltic Languages: Typology and Contact*, 2,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523-568.
- Levin, B.(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iral Usón, R. & Ruiz de Mendoza, F.J.(2008), "New challenges for lexical representation within the Lexical-Constructional Model (LCM)," *Revista Canaria de Estudios Ingleses*, 57, 137-158.
- MacDonald, J.E.(2006), *The syntax of inner aspect*,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Linguistics, Stony Brook University.
- Neeleman, A.(1994), "Complex Predicates," Doctoral Dissertation, Utrecht University at Utrecht University.
- _____ & F. Weerman(1993), "The Balance between Syntax and Morphology: Dutch Particles and Resultative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1, 433-475.
- Nishida, C.(1994), "The Spanish reflexive clitic se as an aspectual class marker," *Linguistics*, 32, 425-458.
- Ramchand, G.C.(2002), "Aktionsart, L-syntax and Selection,"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Oxford at Oxford.
- Riemsdijk, H. van(1978), "A Case Study in Syntactic Markedness," Dordrecht: Foris.
- Rutkowski, P(2007), "The Syntactic Structure of Grammaticalized Partitives(Pseudo-partitives)," *U. Pen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3(1), 337-350.
- Sanz, M.(2000), *Event and Predication*, Amstderdam: John Benjamins.
- Schroten, J.(1972), *Concerning the deep structures of Spanish reflexive sentences*, La Haya: Mouton.
- Stickney, H.(2004), "The pseudopartitive and its illusory projections,"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 Stiebels, B. & D. Wunderlich(1994), “Morphology feeds syntax: the case of particle verbs,” *Linguistics*, 32, 913-968.
- Tenny, C.(1987), “Grammaticalizing Aspect and Affectednes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Linguistics, MIT at Cambridge.
- Van der Leek, F.(1996), “The English conative construction: A compositional account,” *Chicago Linguistic Society*, 32, 363-378.
- Van Hout, A. & T. Roeper(1998), “Events and aspectual structure in derivational morphology,” H. Harley(ed.), *Papers from the UPenn/MIT Roundtable on Argument Structure and Aspect*, MITWPL, 32, 175-200.
- Van Valin, R.D.Jr. & R.J. LaPolla(1997), *Syntax: structure, meaning and fun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ázquez et al.(2000), “Dealing with lexical semantic mismatches between Spanish and English,” M. Sasikumar, D. Rao & P.R. Prakash(eds.), *Knowledge based on Computer system*,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KBC2000, 308-319.
- Verkuyl, Henk J.(1972), *On the compositional nature of the aspects*, Dordrecht: Reidel.
- _____ (1995), “Aspectual classes and aspectual composi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2, 39-94.
- Wiese, R.(1996), *The phonology of German*, Oxford: Clarendon Press.
- Zato, Z.(2014), “Qualia Structure in Spanish Prepositional verbs: When the verb resorts to a preposi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of Hispanic Linguistics*, 3(1), 49-81.
- Zeller, J.(1998), “How syntax restricts the lexicon: particles as thematic predicates,”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Frankfurt at Frankfurt.

곽재용

한국외국어대학교
jykpato@daum.net

논문투고일: 2015년 11월 17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15일

The aspectual properties of Spanish Consumption Verbs with the preposition *de*

Jaeyong Kwa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wak, Jaeyong(2015), The aspectual properties of Spanish Consumption Verbs with the preposition *de*.

Abstract Zato(2014) argues that Spanish consumption verbs, such as *comer*('eat'), *beber*('drink') or *fumar*('smoke'), resort to the preposition *de*('from') in order to express the place from which the subject takes the substance to consume because this place is the same as the substance itself and its consequence is a partitive reading.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the internal argument is partially consumed. Zato considers that the optional realization of the preposition *de* in the consumption verb construction can be treated as a Conative Alternation and this alternation produces aspectual changes. However Vázquez et al.(2000) say that this sort of structure is not possible. In this paper we will try to show that the consumption verb involved with the preposition *de* is not a kind of Conative Alternation. Based on the Distributed Morphology(Halle & Marantz(1993)), we will show that the aspectual interpretation of the consumption verb construction is crucially related to the spell-out condition of $P_{[±SOURCE]}$ in its complement position.

Key words consumption verb, prepositional verb, conative alternation, aspectual interpretation